

Session 09 혼인과 서약을 소중히 여김 (마 5:31-37)

(Honoring Marriage and Our Commitments)

I. 복습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팔복**(마 5:3-12)을 살아나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6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며**(마 5:21-48),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행동들을 추구**(마 6:1-18)함으로 우리 마음이 더 많은 은혜를 값 없이 받게 되는 삶이다. 팔복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께서 활짝 꽃피우기를 원하시는 8 개의 꽃과 같다. 이 꽃들은 우리가 6 가지 유혹을 이겨냄으로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마 5:21-48)과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행동들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정원에 물을 주는 일”(마 6:1-18)을 통해 기경된다.
- B. 이 장에서 우리는 거절해야만 하는, 다음의 2 가지 유혹을 다룰 것이다. 이들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1. 혼인의 신성함을 등한시 하는 유혹 - 언약을 깨뜨림(마 5:31-32)
 2. 우리의 말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을 유혹 - 서약(약속)을 깨뜨림(마 5:33-37)

II. 혼인의 신성함을 무시함 (마 5:31-32)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 5:31-32)

- A. 우리는 혼인의 신성함을 무시함으로 언약을 깨뜨리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마 5:31-32). 바리새인들은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적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과정의 합법성에 초점을 두었다.
- B. 혼인을 통한 육체적인 결합은 바리새인들이 초점을 두고 있었던 법적인 증서를 초월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법적인 이혼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인이 종결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재혼이 간음으로 불리는 이유는, 주께서 앞의 혼인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 C. 혼인의 신성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은 간음과 내어버림(저버림, 유기), 단 두 가지의 이유로만 성립된다. 널리 퍼진 개신교적 관점은, 간음이나 내어버림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는, 이혼 후의 재혼이 성경적으로 용납되는 것이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입장이다.
- D. 마태복음 5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수많은 목양적인 이슈들을 언급하시기보다, 혼인을 통한 육신적인 결합의 신성함의 근본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우리가 혼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관계에 대해 충성되는 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다.

- E. 혼인이 성립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언약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맺어지며, 증인을 필요로 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육신이 됨으로 혼인의 육체적인 면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적인 연합 그 자체만으로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적법한 방법으로서의 서약의 교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혼인이 끝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된 것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혼인 언약이 끝난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서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육체적인 연합 또한 끊어져야 한다.
- F. 이혼과 재혼에 대한 예수님의 주요한 가르침들은 마 19:3-9 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말 2:14-16; 마 5:31-32; 19:3-9; 막 10:11-12; 눅 16:18; 롬 7:2-3; 고전 7:10-15, 27, 39). 이 주제에 대한 더 완성된 설명을 보기를 원하면 Mikebickle.org 에서 **Divorce and Remarriage** 라는 핸드아웃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 G.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신 곳은 마태복음 19 장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 19:8-9)

- H. **음행:** 예수님께서서는 이혼에 대한 근거로는 단 한 가지, 음행을 말씀하셨다(9 절). 이에 대한 헬라어는 *porneia* 이다. 이는 간음이나 여타의 모든 음행의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음행의 행위를 말한다.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음행의 “행위”이다(단지 생각만이 아닌). 즉, 육체적인 방법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포르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다.
- I.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성적인 교제를 함으로, 혼인 언약의 육체적인 결합을 먼저 깨뜨린 사람은 혼인 언약을 깨뜨린 것이며, 간음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전 혼인을 무효화하는 간음이 없이) 재혼하는 자들은 간음을 행한 것이라 가르치셨다. 그들은 재혼을 통해 간음을 행한 것이지만, 영원히 간음한 상태는 아니다.
- J. 자신의 아내와 음행한 이유없이 이혼하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다(마 5:32). 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남편은 여타의 성적인 관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부인이었던 여인은 재혼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 5:32)

- K. **믿음으로 인해 버림받음:** 바울은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짐에 따라 이방인들의 회심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가정들은 부부 중 한 명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새로운 상황이 이혼과 재혼의 두 번째 예외가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버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버림받은 배우자는 혼인 언약 안에 묶여있지 않다.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전 7:15)

- L. **회심한 배우자**는 회심하지 않은 배우자들을 떠나서는 안 된다. 회심한 배우자는 자신의 가정에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가족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전 7:12-14).
- M. 이혼한 성도는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함으로 살 수 있다. 간음을 행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살며 부딪치는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낫다.
- N. 재혼 과정에서 성경적인 원칙들을 어긴 성도들은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되, 새 혼인의 과정 가운데 간음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고백되어야 한다. 이들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에 육신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졌고, 이 결혼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며,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

III. 불성실한 서약하기를 거절하기 (마 5:33-37)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한글 KJV: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3-37)**

- A.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말이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유혹(서약을 깨뜨림, 마 5:33-37)을 이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특정 율법을 인용하지 않으셨으며, 바리새인들이 몇 가지 율법(출 20:7; 레 19:12; 민 30:2; 수 10:20; 23:21-24)을 정리한 것을 언급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 율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시는 것이 아닌,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계신 것이었다.
- B.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셋째 명령(출 20:7)을 왜곡해서 적용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모든 서약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서약들을 헛되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출 20:7)

- C. 그들은 이 명령을 신성모독을 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들은 맹세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만이 구속력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관심의 초점을 서약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두지 않았고, 서약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에 초점을 돌려버렸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진실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구속력이 있는 것과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구분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기보다 피조물로 맹세했고, 거짓 맹세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 D. 그들은 맹세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닌, 하늘(heaven)이나 땅, 예루살렘, 또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맹세를 지켜야만 하는 구속력은 어떤 것을

두고 맹세했는지에 따라 달랐다(마 23:16). 그들은 책임 회피적인 맹세를 거짓말을 하면서도 율법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다.

- E.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의 원래 목적은 사람들의 거짓말하려는 경향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맹세는 매우 엄숙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만 했다. 유대인들은 법정이나 사람들간의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한 용도로 맹세를 사용하기보다, 사적인 대화에서 맹세를 용인했다.
- F. 성경에서 맹세는 허용되어지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맹세는 공식적이고 법정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적인 대화에서 맹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맹세의 합법적인 사용법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주의: 이혼이 허용되었던 것은 **마음의 강박함** 때문이었고, 맹세가 허락되었던 것은 **진실되지 않음** 때문이었다).
- G. 예수님께서서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맹세하심으로 증거하셨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맹세하며 말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고소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마 26:63-64). 바울은 맹세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다(롬 1:9; 고후 1:23; 갈 1:20; 살전 2:5, 10; 빌 1:8).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 (마 26:63-64)

- H.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법정 상황에서까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닌, 일상 대화에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 것에 제한을 두신 것이다(34-36 절).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우리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색깔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맹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고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맹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맹세 자체의 무게감을 피해갈 수 없으며, 우리는 모든 맹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 I.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예는 예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서약에 대해 진실하며 성실할 것을 요구하신다. 서약에 대해 성실한 사람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으며, 권위에 의해 맹세를 요구받기 전에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
- J.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서약을 과장함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일도 열심히 하고, 미팅도 참석하며, 재정을 후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명을 다하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의 서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사람으로 사람으로 나타낸다.
- K. 우리의 말은 우리를 묶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서약을 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말한 것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 믿도록 다른 이들 안에 거짓된 인상일 심어주기 때문이다.
- L.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조종의 영**으로 일하게 된다. 이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하게 될 것보다 훨씬 더 헌신된 사람처럼 우리를 그려냄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일, 그리고 저 일에 헌신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칭송하도록 만든다.

1. 그러나, 이후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을 진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 된다.
2.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서약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감추며, 사실과 맞닥뜨려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곤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며, 우리가 말한 것에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

M. 우리는 “진리(the Truth)”이신 그 분의 제자이다(요 14:6).

N. 우리가 말한 것을 충실히 지켜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진실한 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약한 것들에 대해 그렇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결혼, 자녀, 직장, 친구들, 재정적인 의무, 사역적 상황 등에 적용이 된다. 이것은 산상 수훈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O.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진실됨을 회복하고 계시며,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 4 ...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 15:1-4)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 24:3-4)